SECTOR
UPDATE

2026. 4. 10.

Innovation팀

서근희 Ph.D. 팀장
keunhee.seo@samsung.com

신수한 Research Associate
shn.shin@samsung.com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투자권유의 적합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삼성증권

헬스케어 산업

Immunology 2026: 정밀 조절의 시대로

Immunology 2026

정밀 조절의 시대로

삼성증권 서근희입니다.

초대형 블록버스터 약물 Humira와 같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건선처럼 대표 질환의 염증을 넓게 눌러주는 약이 대표적이었던 자가면역질환 시장은 한때는 TNF 억제제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IL-12/23, IL-17, IL-23, JAK 억제제들이 등장하면서 시장은 단순한 면역 억제에서 질환별 핵심 면역 축을 더 정밀하게 겨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FcRn, B세포 고갈, 이중항체 같은 차세대 기전까지 부상하면서, 자가면역질환 시장은 이제 어떤 면역 축을 얼마나 정확히 공략하느냐가 핵심인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차세대 블록버스터 경쟁이 본격화된 상태입니다. 애브비는 Humira 이후 Skyrizi와 Rinvoq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고, 존슨앤드존슨은 Tremfya와 차세대 IL-23 계열 자산으로 후속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노피와 리제네론은 Dupixent를 통해 Type 2 inflammation이라는 새로운 질환 프레임을 키워냈습니다. 해외 주요 기업들은 하나의 약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IL 계열, JAK, FcRn, B세포 타깃 등 여러 면역 축을 타깃하는 파이프라인을 자체 개발, M&A 등을 통해 확보하며 장기 성장 기반을 넓히는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한올바이오파마와 에이프릴바이오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FcRn 계열 자산을 중심으로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자가면역질환 영역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에이프릴바이오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바탕으로 면역질환 파이프라인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 자가면역질환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 수준의 상업화 단계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이 요구하는 방향이 보다 정밀한 면역 조절과 차별화된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두 기업은 국내에서도 주목할 만한 후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상위 축을 타깃으로 하는 아이엠바이오로직스의 OX40L/TNF 타깃 AMB-101 또한 PoC 입증 전 이미 두 건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REPORT
CONTENTS

01 자가면역질환: 정밀 조절의 시대로 4p

1) 자가면역질환에 대하여

2) 글로벌 블록버스터, Humira

3) 정밀 타깃 전환의 초기 축, Stelara

4) 뉴 블록버스터

5) 자가면역질환 치료제가 빅파마를 사로잡은 이유와 파이프라인 확보 경쟁

02 종목 분석 12p

1) 애브비(ABBV US)

2) 존슨앤드존슨(JNJ US)

3) 한올바이오파마(004920)

4) 에이프릴바이오(397030)

5) 아이엠바이오로직스(493280)

#자가면역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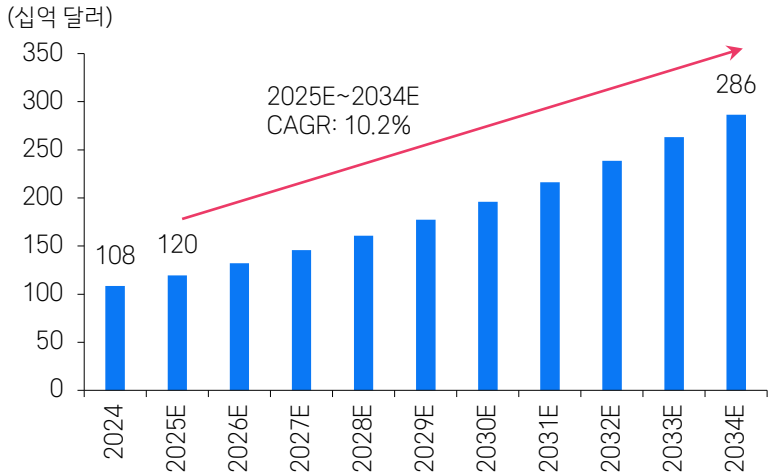
커져가는 자가면역질환 시장

▶ '완치'가 아니라 '관리'

- 자가면역질환 시장은 2024년 달러 1천억 달러 돌파, 2034년 2,864억 달러까지 CAGR 10%대로 꾸준한 성장 전망(Precedence Research). 질환군이 광범위하며 만성적 성격을 띠고, 재발과 관해가 반복되어 장기적인 치료가 필수.
- 중요한 것은 '장기 유지치료'와 '적응증 확장'에 따른 반복 매출 구조. 완치보다 조절과 유지가 중요한 질환이 많아, 초기 치료 이후에도 유지요법, 약제 교체, 병용 확대 등 수요가 지속. 기존 치료는 효과와 안정성에 한계가 있어, 글로벌 제약사들은 인터루킨(IL) 계열, FcRn, CD40L 등 다양한 전략으로 치료제 개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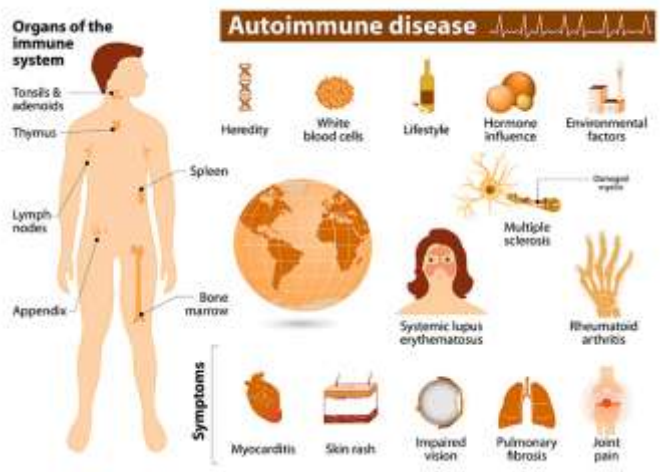
(Remission, 증상과 징후과 일시적 또는 영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사라진 상태)

자가면역질환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자료: PrecedenceResearch, 삼성증권

신체 부위별 자가면역질환 및 증상



자료: NIH,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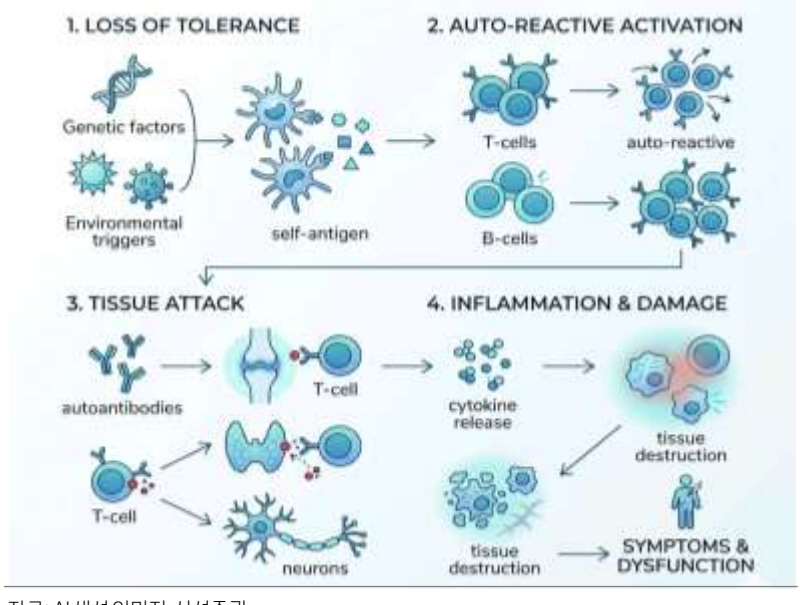
#자가면역질환

자가면역질환은 왜 발생하는가?

▶ 면역 체계의 다툼

- 자가면역 질환의 본질은 체내의 면역계가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면역 관용에 실패하는 것. 유전적 소인에 더불어 환경 노출, 호르몬, 장내 미생물 변화, 감염 등이 겹쳐 B세포, T세포, 자가항체, 염증성 사이토카인 축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
-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은 자가 조직에 대한 지속적 공격으로 이어지며, 만성 염증과 조직 손상, 장기 기능 저하 유발.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재발-관해의 악순환과 함께 비가역적 장기 손상 위험 확대.

자가면역질환 발생 기전 도식



자료: AI 생성 이미지, 삼성증권

자가면역질환의 주요 손상 장기 및 대표 질환 분류

분류	주요 손상 장기	대표 질환
장기	갑상선	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레이브스병
	장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셀리악병
	피부	건선, 아토피피부염, 백반증
	간	자가면역간염,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췌장	제1형 당뇨병, 자가면역췌장염
전신성	전신-다장기	전신홍반루푸스, 전신경화증, 쇼그렌증후군
염증	관절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건선성관절염
	피부	건선, 아토피피부염
	신경계	다발성경화증, 중증근무력증, CIDP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혈관염	혈관-신장-폐	ANCA 연관 혈관염, EGPA, 베체트병 (항호중구세포질항체) (호산구 육아종성 다발혈관염)

자료: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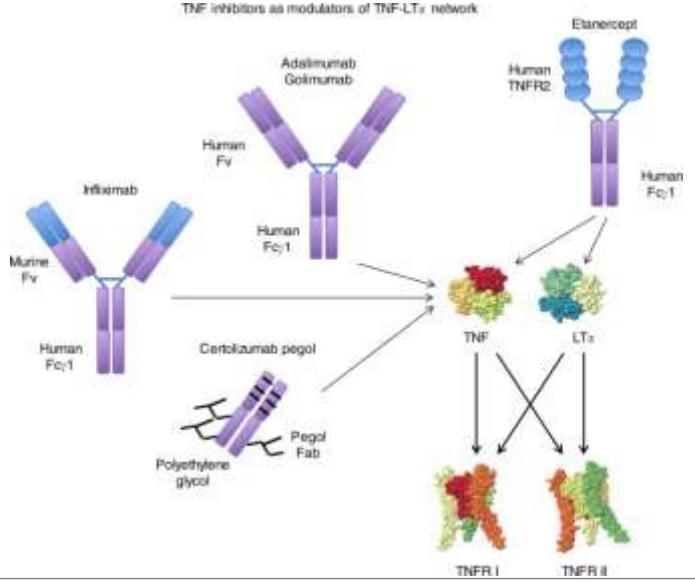
#Humira

최상위 염증 인자 TNF-α 저해를 통한 다양한 적응증 확보

▶Upstream에서 TNF-α 저해

- 1990년대 TNF-α가 RA(Rheumatoid Arthritis, 류마티스 관절염)의 상위 염증 매개자로 규명, 면역 반응의 상위 단계에서 억제하면 전체 염증 축을 누를 수 있다는 접근이 anti-TNF 개발의 출발점.
- Remicade(존슨앤드존슨, Infliximab IV, 1998년), Enbrel(암젠, Etanercept SC, 1998년)같은 anti-TNF 약물이 먼저 등장.
- Humira(애브비, SC, 2002년)는 fully human anti-TNF 항체와 SC 제형을 바탕으로 적응증을 빠르게 확장.

TNF-α 저해 매커니즘



자료: ScienceDirect, 삼성증권

Humira FDA 적응증 확장 타임라인

승인일	적응증	대상
2002년 12월	류마티스 관절염	성인
2005년 9월	건선성 관절염	성인
2006년 7월	강직성 척추염	성인
2007년 2월	크론병	성인
2008년 2월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소아
2008년 1월	만성 판상 건선	성인
2012년 9월	궤양성 대장염	성인
2014년 9월	크론병	소아(6세 이상)
2015년 9월	화농성 한선염	성인
2016년 6월	비감염성 중간부·후부·전체 포도막염	성인
2021년 2월	궤양성 대장염	소아(5세 이상)

자료: 애브비, FDA,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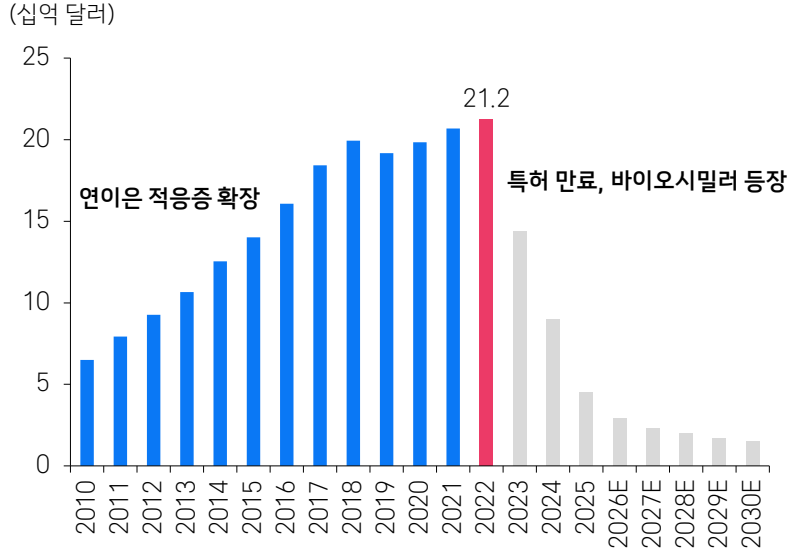
#Humira

글로벌 블록버스터의 등장

▶ 애브비의 효자, Hum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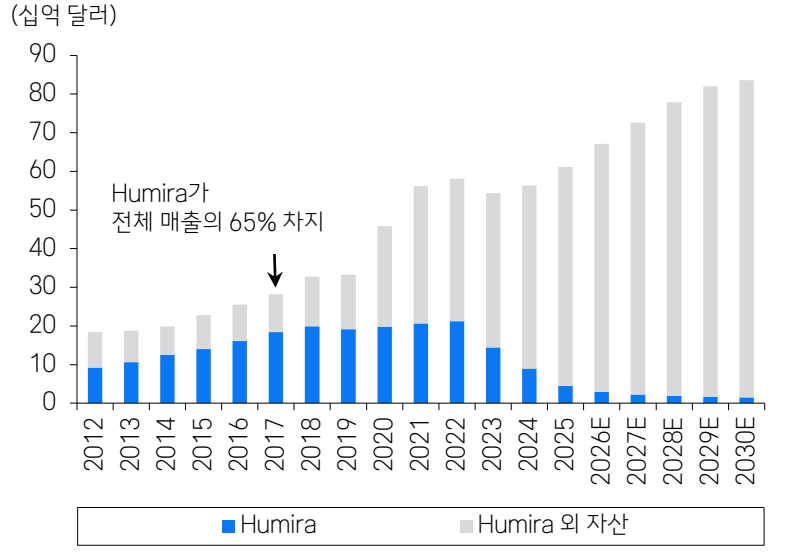
- 애브비(ABBV US)의 Humira는 2002년 허가 이후 2022년에 peak sales 212억 달러 기록. 자가면역질환 블록버스터 1위 등극.
- 장기적인 치료와 반복 처방이 가능한 면역질환 시장에서, 강력한 효능과 넓은 적응증 확보가 결합될 경우 단일 약물도 초대형 매출을 형성할 수 있음을 입증.
- 애브비는 Humira를 기반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Skyrizi, Rinvoq 등 Humira의 뒤를 잇는 자가면역 블록버스터 약물 개발에 성공.

Humira 연도별 매출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애브비 Humira와 Humira 외 매출액 추이 전망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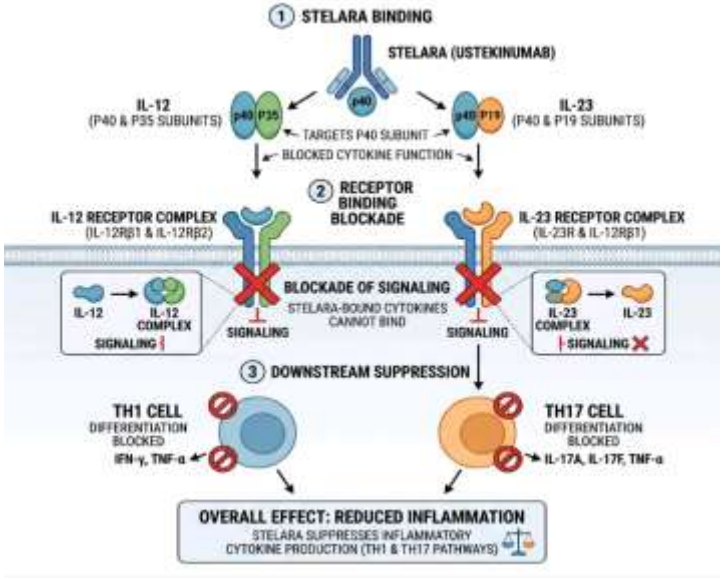
#Stelara의 등장

정밀 타깃 전환의 초기 축, Stelara

▶Stelara, 최초로 Upstream이 아닌 정밀 타깃을 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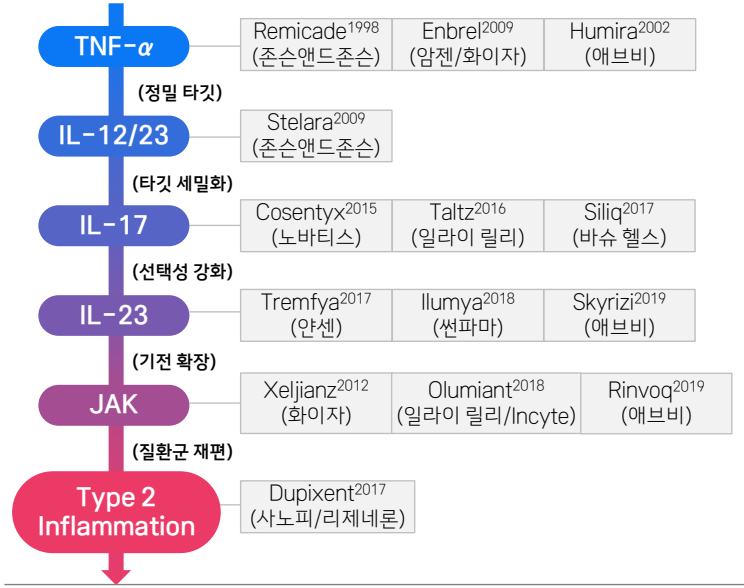
- Remicade로 TNF-α 저해제의 성공을 겪은 존슨앤드존슨(JNJ US)은 2009년 Stelara(IL-12/23)를 출시.
- TNF 억제제보다 더 정밀한 사이토카인 타게팅으로 면역질환 정밀 타깃 치료의 초기 전환점을 만든 자산. 이후에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들은 IL-12/23, IL-17, JAK1/2/3, IL-4/IL-13(Type 2 inflammation) 등을 타게팅하여 신약을 개발하는 데 성공.

IL-12/23 저해제 Stelara 기전



자료: AI 생성 이미지, 삼성증권

Stelara 전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변천사 및 대표 약물



참고: 위 첨자 연도는 FDA 승인 연도
자료: 각사,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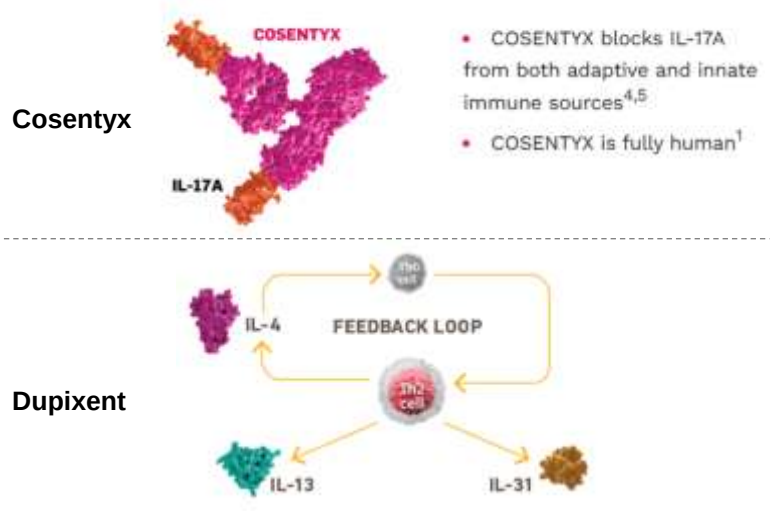
#뉴 블록버스터

타깃 세분화로 블록버스터 등극

▶새로운 타깃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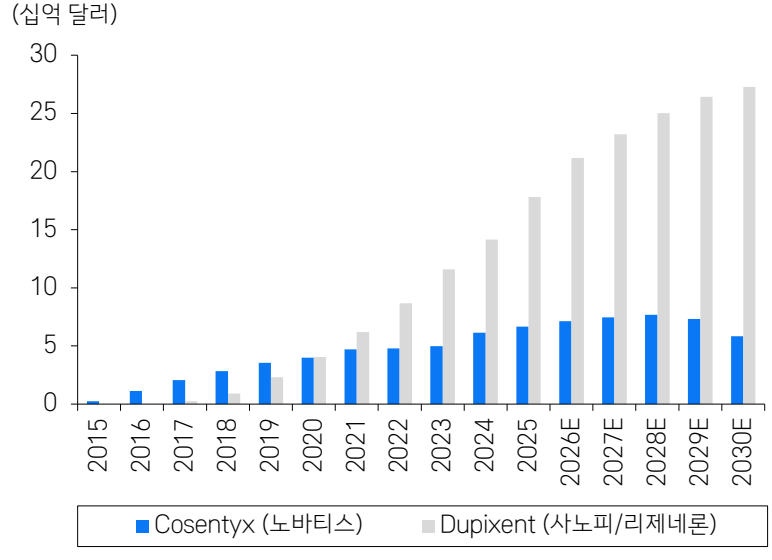
- Cosentyx(IL-17 억제): 노바티스의 제품으로, 2015년 허가. 2025년 매출액 67억 달러 기록. Anti-TNF의 다음 세대로, 건선·척추관절염 치료제로 블록버스터 약물로 등극.
- Dupixent(IL-4/IL-13 억제) 사노피·리제네론의 제품으로, 2017년 허가. 2025년 매출액 178억 달러 기록, 2030년 273억 달러 전망(Bloomberg). Type 2 inflammation이라는 공통 면역 endotype에 기반, IL-4와 IL-13을 억제하는 다적응증 확장형 블록버스터.

Cosentyx 및 Dupixent 기전



자료: 노바티스, 사노피/리제네론, 삼성증권

Cosentyx 및 Dupixent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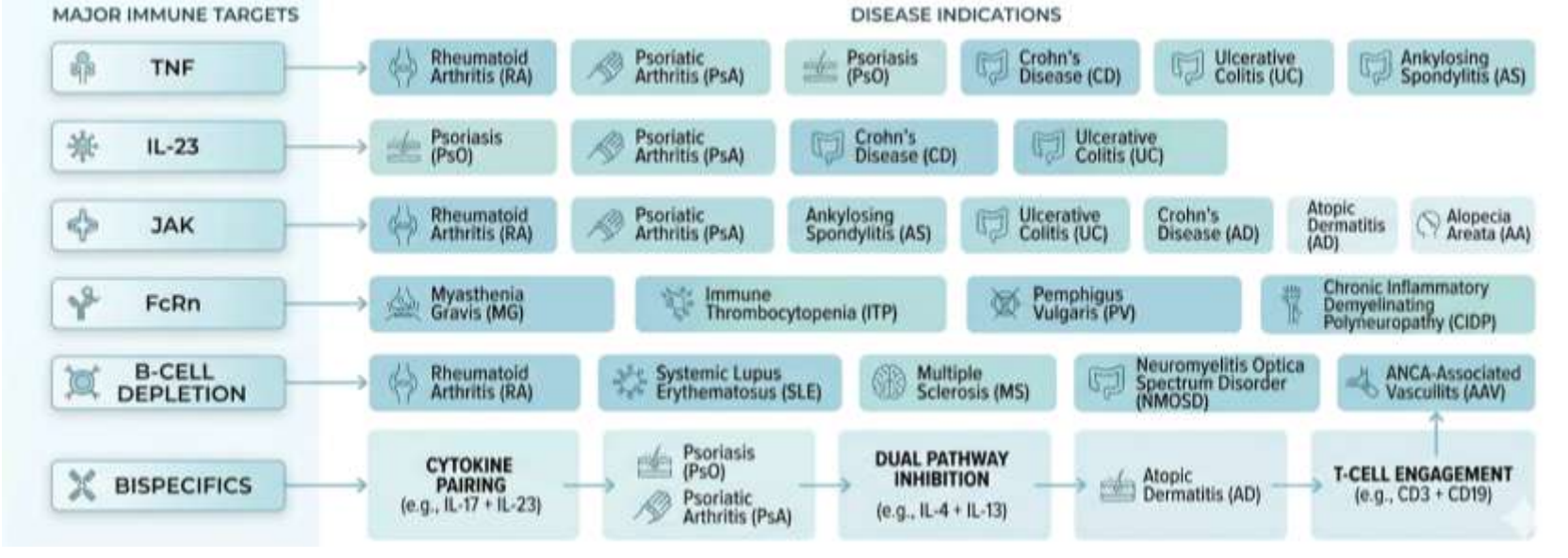
#Why 자가면역질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가 빅파마를 사로잡은 이유

▶왜 이 시장은 블록버스터가 계속 나오는가?

- Humira 이후에도 Skyrizi, Rinvoq, Dupixent, Cosentyx 등 신규 블록버스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계속해서 글로벌 제약사가 파이프라인 확보에 나서는 이유는 자가면역 질환 시장은 단일 질환 시장이 아니라 장기 복약과 적응증 확장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
- 결국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 자가면역질환은 높은 반복 매출, 긴 제품 수명, 다적응증 확장이 동시에 가능한 중요한 마켓 중 하나.

주요 면역 타깃별 적응증 확장 맵



자료: AI 생성 이미지, 삼성증권

#M&A

빅파마의 자가면역질환 파이프라인 경쟁 확대

▶파이프라인 확보 위한 M&A, 딜 활발

- 2025년 6월, 사노피는 Blueprint Medicines를 최대 95억 달러에 인수. 희귀 면역질환 및 면역 파이프라인을 전체 확보하며, 이미 승인된 비만세포증 치료제 및 초기 자산 또한 확보. Dupixent의 의존도가 높은 사노피의 구조적 투자로 평가.
- 그 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M&A, 라이센싱 등의 형태로 파이프라인 확보.

2025년 이후 주요 M&A 및 라이선스 딜

구분	발표일	기업	파트너사	계약 대상	총 규모
M&A	2025년 6월	사노피	Blueprint Medicines	희귀 면역질환 포트폴리오 및 후속 KIT 기반 면역 파이프라인 확보	최대 95억 달러
	2024년 4월	버텍스 파마슈티컬	Alpine Immune Sciences	BAFF/APRIL 이중저해 자가면역 파이프라인 확보	최대 49억 달러
	2026년 3월	길리어드 사이언스	Ouro Medicines	BCMAxCD3 기반 자가면역 TCE 파이프라인 확보	최대 41.25억 달러 + 로열티
자산 인수	2025년 3월	사노피	Dren Bio affiliate Dren-0201	DR-0201 프로그램 인수; B세포 고갈 기반 자가면역 치료자산 확보	최대 21.75억 달러
	2024년 8월	머크	Curon Biopharmaceutical	CN201 프로그램 확보; CD19xCD3 기반 면역질환 확장 가능 자산 도입	최대 19.25억 달러 + 로열티
	2025년 7월	오츠카 제약	Cantargia	CAN10 프로그램 인수; IL1RAP 기반 면역질환 자산 확보	최대 19억 달러
L/O	2025년 6월	보어 바이오파마	레미젠	Telitacicept의 중국 제외 글로벌 개발·상업화 권리 도입	최대 13억 달러
	2026년 1월	일라이 릴리	Repertoire Immune Medicines	자가면역질환 대상 항원 특이 면역관용 유도 치료제 공동개발	최대 12.3억 달러 + 로열티
	2026년 3월	사노피	Kali Therapeutics	KT501 글로벌 개발·상업화 권리 도입; B세포 매개 자가면역질환 타깃	최대 11.8억 달러 + 로열티
	2026년 3월	UCB	덕기의약 (Antengene)	ATG-201 글로벌 개발·상업화 권리 도입; B세포 관련 자가면역질환 타깃	최대 6.13억 달러

자료: 각 사,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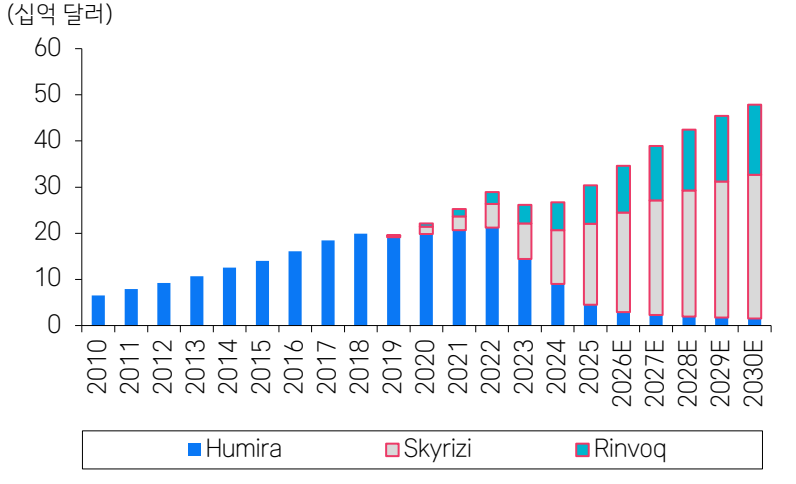
#애브비

Humira에서 Skyrizi, Rinvoq로 이동

▶ 애브비는 Humira 이후 더 정밀한 타깃으로 이동 중

- 애브비는 Humira의 특허 만료 이후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본격화되며 차세대 약물로 전환하여 새로운 후속 파이프라인을 확보.
- 2025년 매출액 Skyrizi(IL-23) 175억 달러, Rinvoq(JAK1) 83억 달러. Humira의 뒤를 잇는 파이프라인으로 언급.
- 2026년 체크포인트: Rinvoq 백반증 승인, 원형탈모증 승인 신청, HS P3 데이터; Skyrizi 크론병 SC 승인 신청(최근 P3 endpoint 충족 발표); Lutikizumab(IL-1α/1β 억제) HS P3 데이터 발표 및 크론병, RA P2 병용 데이터 발표.
- ABBV-319(CD-19 ADC), ABBV-619(CD19 CAR-T) 등 차세대 자산은 2027년 P1 data readout 예정.

애브비 자가면역질환 주요 품목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Dowdy, 2017, 삼성증권

애브비 자가면역질환 파이프라인

약명	타깃	적응증	단계
ABBV-166 (Skyrizi+Lutikizumab)	IL-23+ IL-1α/1β	크론병 건선성 관절염	P2 P2
ABBV-466 (Skyrizi+ABBV-382)	Il-23+ α4β7	크론병	P2
ABBV-8736	TREM1	크론병	P2
ABBV-9832 (Lutikizumab+Ravagalimab)	IL-1α/1β +CD40	류마티스 관절염	P2
Lutikizumab	IL-1α/1β	화농성 한선염 궤양성 대장염 아토피 피부염	P3 P2 P2
Rinvoq	JAK1	화농성 한선염 전신성홍반성루푸스 타카야스 동맥염	P3 P3 P3

참고: 임상 2상 이상 자산만 정리;
자료: 애브비, 삼성증권

#존슨앤드존슨

Stelara 특허 만료로 차세대 약물로 전환에 성공

▶Stelera 특허 만료에도 불구, FcRn과 IL-23R 억제 기전 포트폴리오 앞세워 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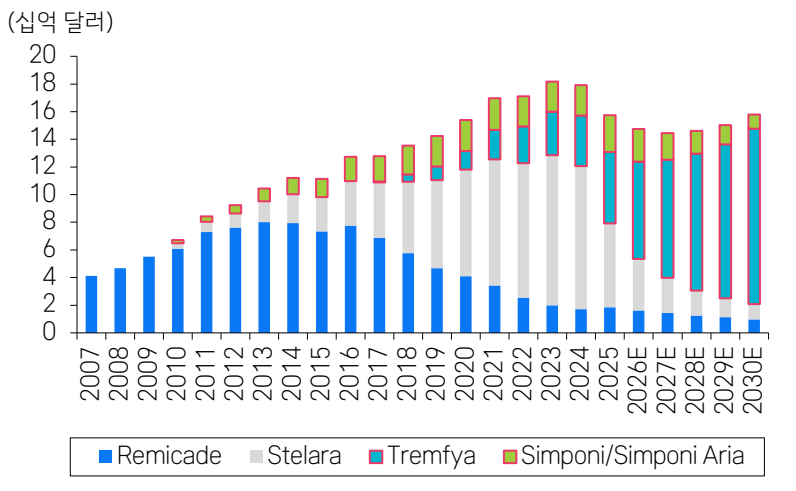
- 존슨앤드존슨 면역질환 포트폴리오는 2025년 Stelara의 특허만료 영향으로 역풍을 받았으나, 회사는 Tremfya(IL-23 p19 억제)와 Simponi/Simponi Aria(TNF-α 억제) 성장으로 이를 방어 중.
- Immunology 성장 동인으로 Tremfya와 Simponi를 직접 언급, 동시에 개발 파이프라인에서는 FcRn 타깃 Nipocalimab과 경구 IL-23R 억제제인 Icotrokinra를 앞세워, 보다 정밀한 타깃 포트폴리오로 이동 중. 지난 3월 18일 Icotrokinra 건선 및 건선성관절염 적응증으로 승인 이후 P3 데이터 발표, 2월 24일 Nipocalimab(FcRn 억제) wAIHA 적응증으로 승인 제출.
- 2026년 체크포인트: Tremfya PA damage 승인, Nipocalimab SLE P2b 데이터 발표(긍정적 탑라인 발표 및 패스트트랙 지정됨).

(Psoriatic Arthritis, 건선성 관절염)

(Warm Autoimmune Hemolytic Anemia, 온난 자가면역 용혈성 빈혈)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존슨앤드존슨 자가면역질환 주요 품목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Dowdy, 2017, 삼성증권

존슨앤드존슨 자가면역질환 파이프라인

약명	타깃	적응증	단계
Icotrokinra	IL-23R	궤양성 대장염	P3
		건선성 관절염	P3
		wAIHA	P3
		크론병	P2
Nipocalimab	FcRn	헌팅턴병(태아, 신생아)	P3
		동종면역혈소판감소증(태아,신생아)	P3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P2
		특발성 염증성 근병증	P2
Tremfya	IL-23 p19	크론병 (소아)	P3
		궤양성 대장염 (소아)	P3
JNJ-4804 Co-antibody Therapy	TNF+IL-23	궤양성 대장염	P2
		건선성 관절염	P2
		크론병	P2
JNJ-5939	IL-4Rα+IL-31	AD	P2

참고: 임상 2상 이상
자료: 존슨앤드존슨, 삼성증권

#한올바이오파마

FcRn의 강자, HL161ANS

▶ Batoclimab과 HL161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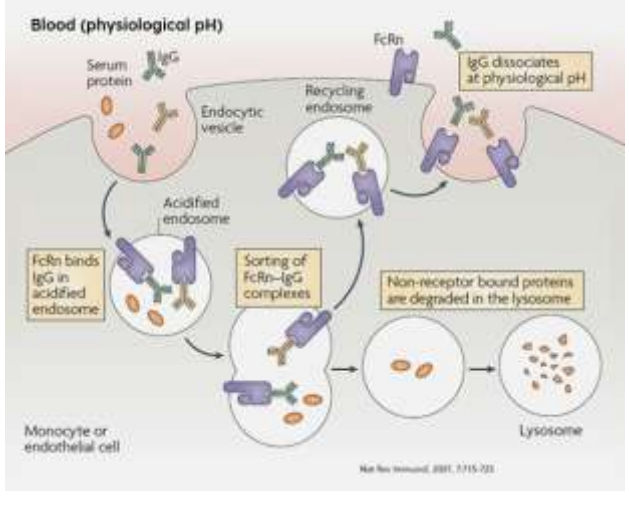
- FcRn 프랜차이즈 보유: Batoclimab(HL161BKN, anti-FcRn)과 HL161ANS(IMVT-1402, 차세대 anti-FcRn) 보유. 두 물질은 FcRn을 차단해 병인성 IgG 자가항체를 낮추는 기전으로, MG, TED, GD(Graves' Disease, 그레이브스병), D2T RA, 쇼그렌병, CIDP, CLE 같은 항체매개 자가면역질환으로 적응증을 넓히는 구조.
  - MG: Myasthenia Gravis, 중증근무력증
  - CIDP: 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 Batoclimab이 먼저 임상 데이터를 쌓은 1세대 자산이라면, HL161ANS는 알부민 영향 최소화와 피하주사 편의성, 더 빠르고 깊은 IgG 저하를 내세운 후속 자산.

Batoclimab vs HL161ANS 적응증별 개발 단계

Project code	Indication	Preclinical	Phase 1	Proof-of-Concept	Pivotal	BLA/NDA Review
Batoclimab	중증근무력증 (MG)				(US/EU/Japan)	
					(China)	
	갑상선 안병증 (TED)				(US/EU/Japan)	
					(China)	
	그레이브스병 (GD)				(Germany)	
	만성 염증성 다발성 신경병증 (CIDP)				(US/EU)	
Imeroprubart (IMVT-1402)	그레이브스병 (GD)				(US/EU)	
	류마티스 관절염 (ACPA+ D2T RA)				(US/EU)	
	중증근무력증 (MG)				(US)	
	만성 염증성 다발성 신경병증 (CIDP)				(US)	
	쇼그렌 증후군 (SjD)				(US)	
	피부 홍반성 루푸스 (CLE)				(US)	

자료: 한올바이오파마, 삼성증권

FcRn 기전



자료: 한올바이오파마,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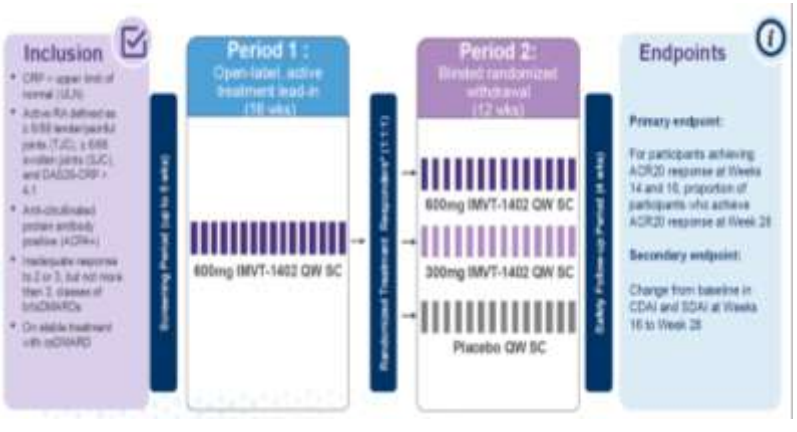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이뮤노반트

▶ 이뮤노반트와의 파트너십

- 이뮤노반트는 최근 Batoclimab TED 환자 대상 P3 결과 발표. 실패 이유는 임상 설계상 용량 감량 구간이 1차 평가에 불리. 2세대 FcRn 억제제인 IMVT-1402는 더 강력한 IgG 억제 확인되면서 저용량 전환 설계 문제가 IMVT-1402 임상에서는 번복되지 않을 것.
- 2H26 IMVT-1402 D2T ACPA-RA, CLE PoC 탑라인 결과 발표 예상. 경쟁약물 Nipocalimab IRIS-RA에서 1차 지표 DAS28-CRP로 설정해 통계적 유의성 달성 실패. 사후 분석 고ACPA (Anti-Citrullinated Protein Antibodies, 항시트룰린단백 항체) 환자군 반응이 2배 이상, ACR20기준으로는 유의성 달성 가능했음. (미국 류마티즘 학회에서 정한 치료 효과 평가 지표)
- 이를 근거로 IMVT-1402 ACPA+ 환자만 선별, 14/16주 후 무작위 배정 유지 설계(Randomized Withdrawal Design, 오픈라벨에서 반응한 사람만 골라 배정). 1차 지표 ACR20으로 교체, 더 높은 용량으로 설정으로 수정 설계하여 위험 요소 줄임.

IMVT-1402 RA 임상 디자인



자료: Immunovant, 삼성증권

IMVT-1402 vs Nipocalimab 임상 설계

구분	IMVT-1402 D2T RA	Nipocalimab IRIS-RA
임상 현황	P2 진행 중	P2 완료
설계	반응자 무작위 배정	전체 무작위 배정
환자군	2종 이상 bDMARD 불응 ACPA+/IgG	1종 이상 anti-TNF 불응 ACPD+ or RF+
투여 용량	600mg SC QW	15mg/kg IV Q2W ~58% IgG 감소
1차 지표	ACR20@28w	DAS28-CRP@12w Nipo 21.2% vs 위약 10% (p=0.456)
하위 분석		고ACPA 환자군 Nipo 40% vs 위약 16.7%

자료: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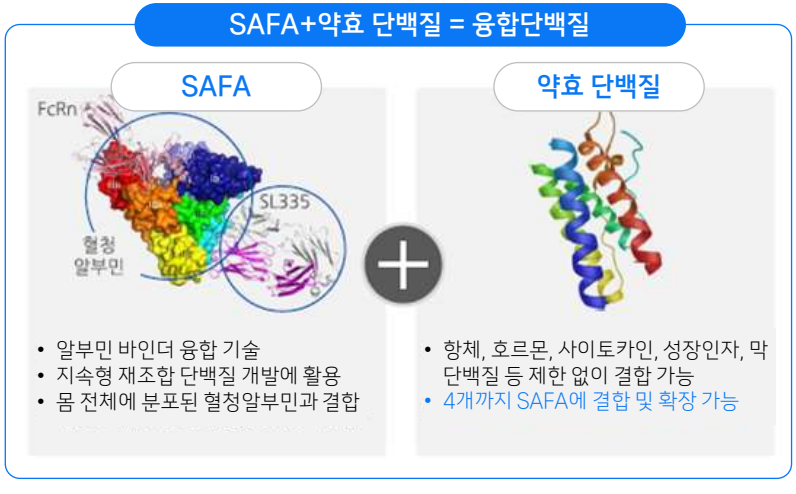
#에이프릴바이오

임상 결과로 입증된 SAFA 플랫폼의 경쟁력

▶SAFA 플랫폼의 확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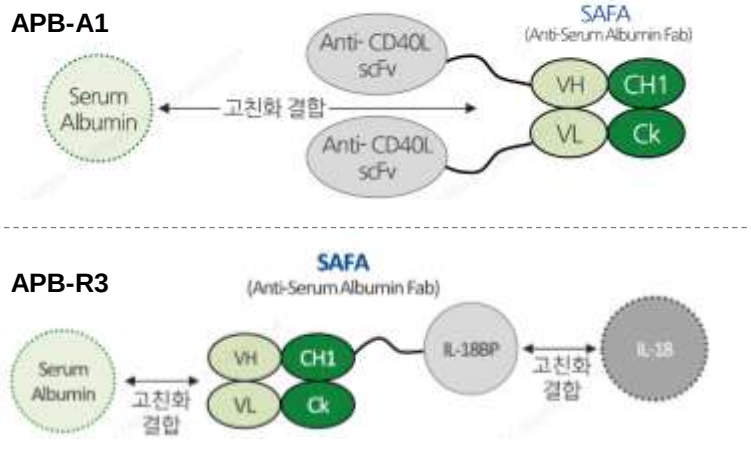
- 에이프릴바이오의 SAFA 플랫폼은 알부민 결합을 활용해 반감기를 늘리는 기술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의 투약 간격과 노출 지속성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자가면역 쪽 대표 자산은 APB-A1(Lu AG22515, CD40L)로, CD40L-CD40 신호를 차단해 T세포-B세포 활성과 염증 반응을 낮추는 기전이며 현재 TED 적응증으로 개발 중.
- APB-R3(EVO301)는 IL-18 binding protein-SAFA 융합단백질로, 적응증 특성상 자가 염증 질환 치료제에 가깝지만 SAFA 플랫폼의 범용성과 기술 가치를 함께 입증한다는 점에서 APB-A1과 함께 평가해야 하는 자산.

SAFA 플랫폼



자료: 에이프릴바이오, 삼성증권

APB-A1, APB-R3 구조



자료: 에이프릴바이오, 삼성증권

#에이프릴바이오

PoC 확인 완료. 이제 본게임

▶SAFA 플랫폼의 기술력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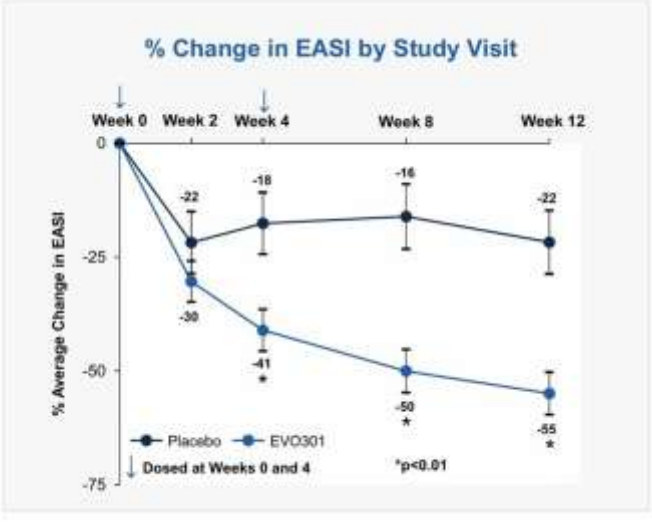
- 파트너사 룬드벡은 Endo 2026 학회에서 APB-A1(Lu AG22515)의 TED P1b 최종 결과 발표 예상. 이후 임상 2상 설계(급성 및 만성 환자군 분리 임상 추진) 및 MS 등 신경면역질환으로 적응증 확장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
  (Endocrine Society, 미국 내분비학회) (Multiple Sclerosis, 다발성경화증)
- 파트너사 에보뮨은 지난 2월 APB-R3(EVO301)의 아토피피부염 P2a 탑라인에서 1차 평가지표 충족. 피하 주사 제형 기반 2b상에서 최적 용량 확립 예정. 또한 차기 적응증으로 UC P2 개시 계획. 에보뮨은 IL-18 경로 매개 적응증 확장 예정.
  (Ulcerative colitis, 궤양성 대장염)

APB-A1 경쟁 약물 현황

	AT-1501 Tegoprubart	SAR-441344 Frexalimab	CDP7657 Dapirolizumab	HZN-4920 Dazodalibep	APB-A1
제조사	Eledon	사노피	UCB/Biogen	Amgen/Horizon	에이프릴바이오
적응증	루게릭	다발성 경화증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갑상선 안병증
개발 단계	3상 준비 중	3상 진행 중	3상 성공	3상 진행 중	25년 1월, 1b상 진입
구조	IgG with mutant FC	IgG with unglycosy lated Fc	Fab-PEG	Tn-3-HAS fusion	SAFA-fusion
면역원성 발생 가능성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낮음
혈전색전증 가능성	O (probably)	O (probably)	X	X	X
상업적 개발성	높음	높음	중간	높음	높음

자료: 에이프릴바이오, 각 사, 삼성증권

APB-R3 임상 2a상 탑라인 결과



자료: 에보뮨, 삼성증권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상위 타깃을 축으로 자가면역 파이프라인 보유

▶상위 타깃인 OX40L, TNF 동시 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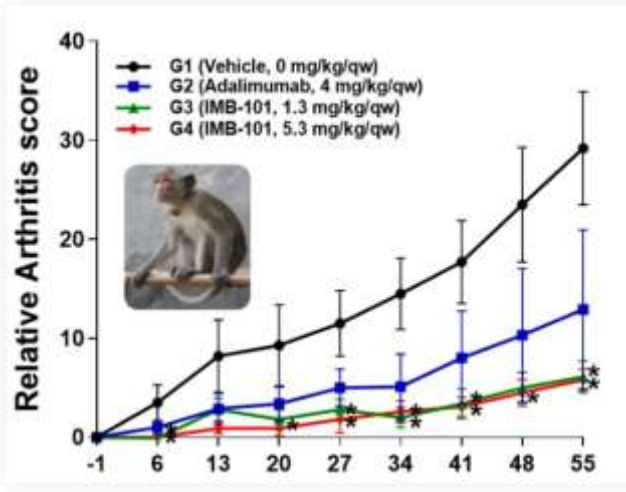
- IMB-101: OX40L/TNF 동시 표적 이중항체, 파트너사 Navigator Medicines, HS 임상 2상 진입. OX40L은 염증 조직에서 발현하는 T세포(Th1/2/17 등) 공동 자극 경로는 보다 상위 면역조절 경로로 이미 Humira 등으로 검증된 TNF 억제를 통한 innate inflammation을 최소화. 전임상 단계에서 Humira ¼ 용량으로도 염증 지표 감소 효과 확인, 관절 및 골 손상 관련 지표 개선 관찰.
- 2026년 3월 첫 투약 시작, 2027년 하반기 결과 발표 기대, PoC 입증 전 Navigator Medicines('24.06, 아시아 제외 글로벌 권리, 일본 포함)와 화동제약('24.08, 아시아 권리, 한국과 일본 제외)에 L/O한 자산으로 PoC 입증 기대감 유효.
- IMB-102: OX40L 단독 타깃으로, 아토피 피부염 중심으로 후속 개발 중. IMB-101 PoC 입증시 파이프라인 가치 재평가 기대.

OX40 관련 글로벌 경쟁 파이프라인 현황

약명	회사명	타깃	적응증
Brivekimig	사노피	OX40L + TNFα	HS(P2b), T1D(stage 3, P2a), CD(P2b), US(P2b)
NAV-240	Navigator Medicines/ 아이엠바이오로직스	OX40L + TNFα	HS(P2a)
NAV-242	Navigator Medicines/ 아이엠바이오로직스	OX40L + TNFα	HS 중심 염증성 자가면역질환 (P1)
Amlitelimab	사노피	OX40L	AD(허가 준비), 천식(P2)
IMB-102	아이엠바이오로직스	OX40L	AD(P1 진입 예정)
Oxelumab / RG4930	Roche / Genmab	OX40L	천식, 알레르기 비염 (2011년 개발 중단)
IMG-007	이매진바이오	OX40	AD(P2b), 원형탈모(P2a)
STAR-0310	Astria Therapeutics	OX40	AD(P1a)
Telazorlimab	Astria 라이선스 인 자산, 원개발 IGI / Ichnos	OX40	AD(P2b), 원형탈모(P2a)
Rocatinlimab	쿄와발효기린 / 암젠	OX40	AD, 천식, PN(결절성 양진) (26.03 개발 중단)
APG279	아포지테라퓨틱스	IL-13 + OX40L	AD(P1b)

자료: 각 사,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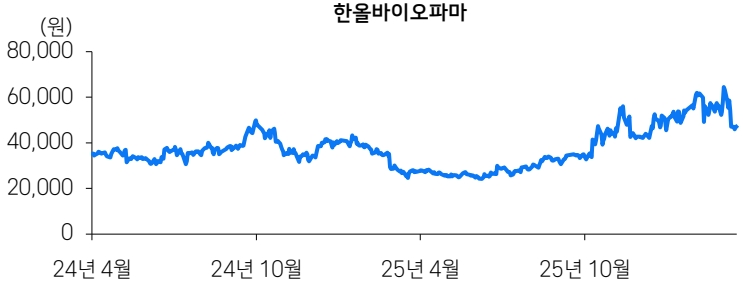
IMB-101 영장류 모델 유효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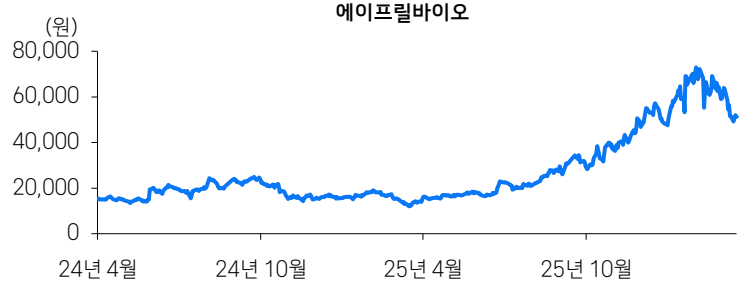
자료: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삼성증권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추이

한올바이오파마



에이프릴바이오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추이

한올바이오파마	
일 자	2026/4/10
투자의견	Not Rated
TP (원)	n/a
괴리율 (평균)	
괴리율 (최대 or 최소)	

에이프릴바이오	
일 자	2026/4/10
투자의견	Not Rated
TP (원)	n/a
괴리율 (평균)	
괴리율 (최대 or 최소)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일 자	2026/4/10
투자의견	Not Rated
TP (원)	n/a
괴리율 (평균)	
괴리율 (최대 or 최소)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삼성증권은 기업 및 산업에 대한 투자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 2023년 7월 27일부로 기업 투자 등급 기준 변경

기업

BUY (매수)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상
그리고 업종 내 상대매력도가 평균 대비 높은 수준

HOLD (중립)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15% 내외

SELL (매도)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하

산업

OVERWEIGHT (비중 확대)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상승 예상

NEUTRAL (중립)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5%)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하락 예상

최근 1년간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비율 2026.3.31 기준

매수(85.2%) • 중립(14.8%) • 매도(0%)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4월 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4월 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